

월요광장

4차 산업혁명과 콘텐츠 산업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에게만 있는 ‘내일’이라는 개념이다. 인간만이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간다.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수천 년 전 인류도 별을 보고 미래를 점쳤고,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도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를 궁금해 한다. 운세와 사주를 보는 역술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또는 미래를 여행했으면 하는 꿈을 꾸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과거보다는 미래 여행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미래에 가서 복권번호를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미래에는 과학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했을지도 알고 싶었다.

법조칼럼

선거철과 사자성어



이 상 엽 변호사

한 차례의 광풍이 4월 국민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동랑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면 자연스레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떠올려 본다.

각 정당은 인재들을 영입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다. 사람들 속에는 정말 한눈에 필 정도로 돋보이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경험이 없거나 적은 백면서생(白面書生)도 있다. 젊은

인재들의 경우 활발한 이미지와 패기(霸氣)로 인하여 젊은 정당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당들이 영입 대상 섹터로 할당해 놓은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노동법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유보하겠다고 한 모 정당 예비후보 기사를 보면서 국회의 원으로서 사회 전체를 조망하고 아픔을 살필만한 경험과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입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쓸쓸함이 배가도 하였다. ‘첫 술에 배부르랴’는 말로 다독이며 나갈 수도 있겠다.

인재 영입 과정 중에는 의례 삼고초려(三顧草廬)와 오월동주(吳越同舟)를 떠올려 볼 수 있다.

최근 모 정당에서는 상대당 출신으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지낸 조웅천 씨를 영입하면서 당 대표가 조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몇 차례나 찾아가곤 끝에 영입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다. 국보위 출신인 김중민씨까지 영입하여 중도세

력의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혀지는데 유비가 제갈공명을 발굴해낸 삼고초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월동주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의 진행 경과로 유권자가 판단해낼 몫일 것이다. 이는 모 정당이 상대당 국회의원인 조경태 의원을 영입한 것에서도 유의 관찰해 볼만한 일이다.

인재를 영입한 정당들은 당내 경선과정을 통하여 각 지역 후보들을 확정하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다. 그 많은 후보들은 지역구를 순회하고 시민들을 만나며 자신의 정견(政見)을 밝히고 공약(公約)을 발표할 것이다. 흔히 말하듯 공약이 공약(空約)이 될 것인지는 유권자들은 뽑기 전에 정찰로 알기 어렵다. 예측 가능하다 해도 세상 말로 앞에서는 그 좋은 말들을 하고 웃으며 약속로 환대하는 데 그 후보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배길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교연영색(巧言令色)으로 당선되어 가

기대된다. 첨단기술 자체는 산업과 경제에 어느 정도 변화를 불러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인간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결합되어야 한다.

문화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콘텐츠와 유리된 문화기술(CT : Culture Technology)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5000년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문화 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여기에도 문화 기술을 미래 유망 신기술로 분류하고 국가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계 캐나다인 소설가 윌리엄 김슨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먼 미래의 것으로만 생각했던 드론, 사물인터넷, 가상현실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이미 우리들 곁에 다가와 있다.

이 기술들을 콘텐츠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게 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문화 산업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이는 다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으로 4차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주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 고

‘단합’에서 벗어나야할 사회복지사회협회장 선거



정금철 전남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지난 1월 15일 타계한 신영복 교수는 ‘행간과 여백’ 강에서 개념의 틀에 갇히면 사고의 깊이와 창의성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동양고전읽기 ‘강의’라는 책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일상에서 좋은 일과 착함에 갇혀 옳은 일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있는 필자에게는 큰 깨우침이었다.

사회복지사를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시선에는 제도나 법규 준수범주를 넘어서 매우 높은 도덕적 기대치가 설정되어 있다. 좋은 일, 대단한 일, 착한 일, 그 깊이나 정도를 표현하지 않으면 결박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고착화는 위·수탁 절차

연해지지 말아야.

민주주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싸우는 방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작금의 복지가 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자원을 연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일련의 운동으로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면 더욱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번 협회장 선거과정의 한 중심에는 위탁으로 치러지는 모바일 투표가 있다. 비용절약과 무효표 방지, 참여의 확대, 진행의 효율성, 편리성 등을 들어 긍정적이지만 기술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 등 현실적용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학계에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본인 확인 절차에 있어서 비밀투표의 보장 문제가 제기되고, 역으로 절차 미흡으로 인해 신원 도용이나 표 매수 등을 통한 대리투표가 유행해 직접선거,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편리를 위해 도입한 모바일 투표가 자율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복지사의 기본권을 유린하고도 죄의식 없는 책임자들과나 기본권을 시실장에게 맡기는 복지사 역시 자존감을 버리는 위

험한 일이다. 아울러 복지사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집단으로 결집해 협회장 선거를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 역시 철저히 경계되어야 한다.

정치 흉내 내는 복지인과 복지로 위장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이는 분명 몰아배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이제 가시적 복지는 현장에서 없어져야 하고 통용되지 못하도록 복지사 스스로가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시대는 좋은 일 하는 단합있는 복지사 보다 모두에게 좋은 일, 옳은 일을 하는 동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의 중간 책임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편파적 행동도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재검토되어야 한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들의 역할과 위치, 업무영역과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설신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럼에도 그럴싸한 명분으로 특정후보와 행보를 같이 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감히 할 것이다. 자신도 모르게 짜여진 판,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이기심의 바다에 함몰될 것임을 알아차려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혁신도시 누더기 도로 책임 공방 불쌍사납다

쾌적한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도로가 준공 1년 만에 누더기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 도로 곳곳에서 차선이 사라지고 일부는 파손이 심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 공사를 마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포장에 파이거나 보도블록이 침하되고 균열된 곳이 부지기수다. 차선의 도색이 벗겨지고 탈색돼 건물목의 식별이 어려운 곳도 있어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도로 선택 잘못으로 차선별 도로 색깔이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구간도 있었으며, 이 도로 끝의 70m 구간은 떨어져 나온 아스콘 조각들로 지갈밭으로 변해 있었다.

나주시가 지난해 4~6월 사이 도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LH 시행 공사 구간에서 141건, 전남개발공사 92건, 광주도시공사 54건 등 287건이 지적됐다. 이후 시는 시행사에 보수 및 재시공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400건

의 문제가 드러나 부실공사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정이 이런데도 나주시와 공사 시행사 측은 보수를 놓고 ‘내 탓’ 공방만하고 있다. 나주시는 재시공 등을 요구한 지 열 달이 지나도록 전체 대상의 4분의 1인 100여 곳에만 이행됐고 앞으로 설계도면으로 재검열할 경우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시행사 측이 유지·보수 의무를 시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 등은 나주시에 시설물 전반에 대한 인계가 끝난 상황이며 올해부터는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를 세우기로 합의했다며 맞서고 있다.

양측이 서로 입장만 내세우며 맞선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주시와 시행사 측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되 불분명한 부분은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 하자보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고심 끝에 1호 법안 내놓았지만

국민의당이 최근 고심 끝에 창당 1호 법안으로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를 불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 임대주택’을 조성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밖에 나머지 두 개 법안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은 낙하산 금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손질한 공정성장법 등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낙하산 인사 또는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또한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감안한 공공주택 특별법 역시 미뤄서는 안 될 절실한 법안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인데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을 털어서 총당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집값 마련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가 나마랄 수 없이 좋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출산율을 높이게 되면 최소한 20년 뒤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그들의 설명에는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2156만 명의 가입자가 노후 대비용으로 모은 돈인 국민연금을 정치권이 것처럼 선심성 사업에 써서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노후를 보장하는 ‘강제 저축’인 국민연금을 털어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꼭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어떤 수단이 있는지 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모르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날마다 내 주변을 뒤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막무가내로 편지나 전화(메시지)를 하고, 선물을 지속적으로 보내온다 해도 기쁘기보다는 공포감을 느낄 것이다. 최근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폭력이나 살인으르기까지 비화하면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스토킹의 역사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상 최초의 스토킹은 역시 남자로 그리스신화의 태양신인 ‘아폴론’이

모습을 바꿔 달라고 간청해 갈대로 변한다.

공황·공포를 뜻하는 ‘패닉’(PANIC)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판’에서 생겼다. 그녀를 차지하지 못한 판은 갈대 몇 대를 쪼여 피리를 만들어 불었다. 이것이 팬플루트(팬파이프)의 유래이다.

기원전 신화에서도 보듯 스토킹은 피해자의 목숨을 잃게 할 뿐 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큰 상실감을 안겨 준다.

지금까지 범칙금 8만 원에 불교했던 태양신인 ‘아폴론’이

스토킹

아폴론은 에로스의 장난으로 인해 사랑의 화살을 맞은 뒤, 그의 신 ‘페네오스’의 딸 ‘다프네’에게 반해 끊임없이 쫓아다닌다.

하지만 에로스가 쏜 증오의 화살을 맞은 다프네는 그가 싫어 탈아닌다. 아폴론에게 거의 잡힐 지경에 이른 다프네는 강에서 아버지에게 구원을 요청해 결국 월계수로 변한다. 이미 때는 늦은 상태, 아폴론은 절규한다.

목축의 신인 ‘판’(PAN) 역시 지저분한 스토커로 볼 수 있다. 성욕을 못 이긴 판은 아르카디아의 님프인 ‘시링크스’를 쫓아간다. 그녀는 놀란 나머지 도망가다가 강의 님프들에게 자신의

스토킹에 대해 올해부터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고 한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 스토킹에 대해 2~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듯하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곳도 많다. 휴대전화의 보급과 함께 스토킹의 정도와 수법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스토킹이 테이트 폭력이나 납치·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고관리서 등록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